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83-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4 결혼인식조사] 결혼 준비과정 및 결혼 비용 부담,
혼전 동거 등에 대한 인식

2024. 06. 05.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결혼 준비과정 필요성 및 결혼 비용 부담

2명 중 1명, 결혼 과정에서 프리포즈 이벤트 필요해
양가 상견례 필요하다, 작년 대비 4%포인트 감소

대다수는 결혼 과정에서 혼인신고(85%), 신혼여행(82%), 양가 상견례(77%), 결혼식(76%)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족 및 친지 앞에서 혼인을 서약하는 결혼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0%를 넘는다. 다만 30대는 58%만이 결혼식이 필요하다고 답해, 다른 세대 대비 높지 않다(18-29세 71%, 70세 이상 88%). 신혼여행(80%)이나 혼인신고(76%)와 같이 법적 증명 혹은 여생을 함께 할 상대와 보내는 시간이 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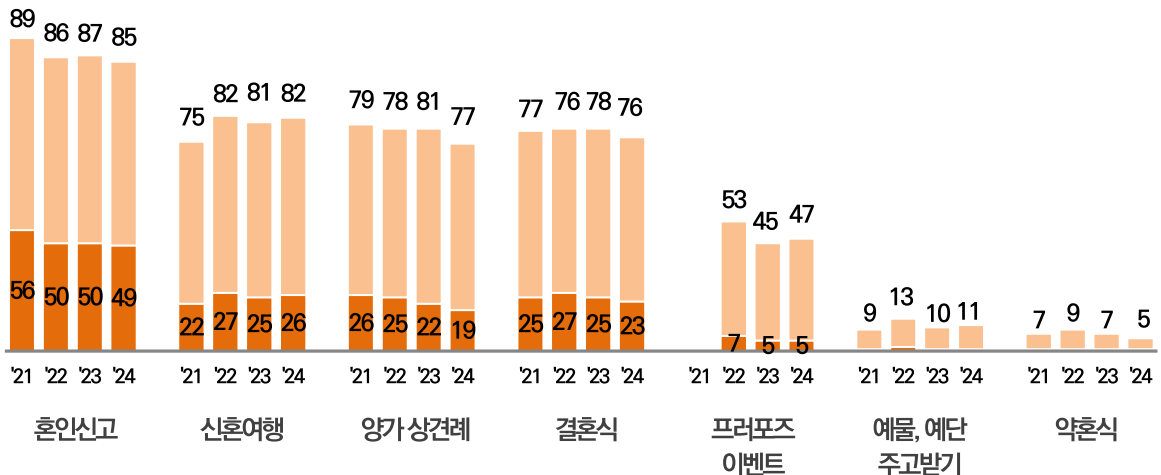
2명 중 1명은 프리포즈 이벤트가 필요하다고(47%)고 답했고, 3년 연속 4-50%대를 유지한다. 특히 18-29세 중 프리포즈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61%로 전 세대 중 가장 높다.

예물·예단 주고받거나 약혼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4년 연속 10% 안팎이다. 모든 세대에서 예물과 예단을 주고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나, 70세 이상(21%) 응답자의 5명 중 1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2명 중 1명, 결혼 과정에서 프리포즈 이벤트 필요해(47%)
양가 상견례 필요하다, 작년 대비 4%포인트 감소(81%→77%)

■ 반드시 필요하다 ■ 반드시+대체로 필요하다

(단위 : %)



질문: 결혼 과정에서, 다음 각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프리포즈 이벤트' 항목은 2021년에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5. 21. ~ 24. // 2022. 5. 20. ~ 23. // 2023. 5. 26. ~ 30. // 2024. 3.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8-29세, '프리포즈' 필요하다 61%
30대, 결혼식(58%)보다는 혼인신고(76%)와 신혼여행(80%)이 더 중요해

(단위 : %)

'반드시+대체로 필요하다' 응답		사례수 (명)	혼인신고	신혼여행	양가 상견례	결혼식	프리포즈 (청혼) 이벤트	예물, 예단 주고받기	약혼식
전체		(1,000)	85	82	77	76	47	11	5
성별	남자	(496)	86	83	76	78	51	13	7
	여자	(504)	84	81	79	73	43	10	3
연령	18-29세	(161)	85	81	74	71	61	13	9
	30대	(149)	76	80	73	58	41	7	3
	40대	(179)	78	81	73	71	37	4	1
	50대	(195)	85	85	74	75	46	12	4
	60대	(173)	93	82	84	90	46	13	5
	70세 이상	(143)	93	81	88	88	52	21	11
성별x연령	남자_18-29대	(84)	80	82	74	70	58	13	12
	여자_18-29대	(77)	90	80	75	73	64	12	6
	남자_30대	(77)	71	73	69	58	41	6	4
	여자_30대	(72)	82	88	76	59	40	8	1
	남자_40대	(91)	85	81	68	73	36	5	2
	여자_40대	(88)	72	80	77	70	38	3	0
	남자_50대	(98)	92	93	76	83	58	18	6
	여자_50대	(97)	79	76	73	66	35	6	3
	남자_60대	(85)	92	84	83	92	52	17	8
	여자_60대	(88)	94	81	86	89	40	9	1
	남자_70세 이상	(61)	97	81	92	93	63	19	16
	여자_70세 이상	(82)	90	81	85	84	44	22	8
혼인여부	미혼	(314)	82	78	74	67	51	12	6
	배우자 있음	(560)	87	84	80	80	45	10	5
	사별, 이혼	(126)	82	82	75	76	45	15	4

질문: 결혼 과정에서, 다음 각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반드시+대체로 필요하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3.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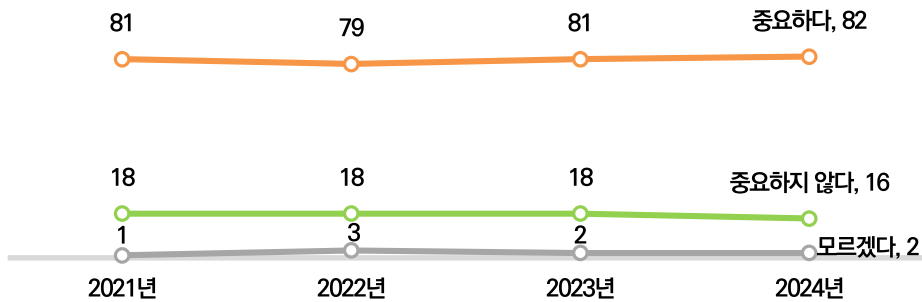
결혼은 양측 가족의 의견보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82%

82%의 대다수는 '결혼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양측 가족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결혼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80% 대를 유지한다. 특히 50대 이상 부모 세대는 결혼 당사자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8~90%대로 18~29세·30대 자녀 세대보다 높다.

결혼은 양측 가족의 의견보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82%

(단위 : %)

결혼은 양측 가족의 의견보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50대 이상 부모 세대, 18~29세·30대 자녀 세대보다 '결혼 당사자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인식 높아, 8~90%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전체	(1,000)	82	16	2
성별				
남자	(496)	80	17	3
여자	(504)	84	15	2
연령				
18~29세	(161)	70	22	8
30대	(149)	75	21	4
40대	(179)	79	21	1
50대	(195)	84	15	1
60대	(173)	90	10	0
70세 이상	(143)	93	6	1
혼인여부				
미혼	(314)	71	24	6
배우자 있음	(560)	87	13	1
사별, 이혼	(126)	87	11	2

구분	사례수 (명)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전체	(1,000)	82	16	2
성별 x 연령				
남자_18~29대	(84)	64	25	11
여자_18~29대	(77)	77	19	4
남자_30대	(77)	74	21	5
여자_30대	(72)	75	21	4
남자_40대	(91)	75	24	1
여자_40대	(88)	83	17	0
남자_50대	(98)	84	16	0
여자_50대	(97)	85	13	2
남자_60대	(85)	91	9	0
여자_60대	(88)	90	10	0
남자_70세 이상	(61)	96	4	0
여자_70세 이상	(82)	91	8	1

질문: 결혼과 관련한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결혼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양측 가족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

응답자 수: 1,000명

비고: '동의한다'는 '중요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중요하지 않다'로 대체해 서술함.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응답 제시함.

조사기간: 2021. 5. 21. ~ 24. // 2022. 5. 20. ~ 23. // 2023. 5. 26. ~ 30. // 2024. 3.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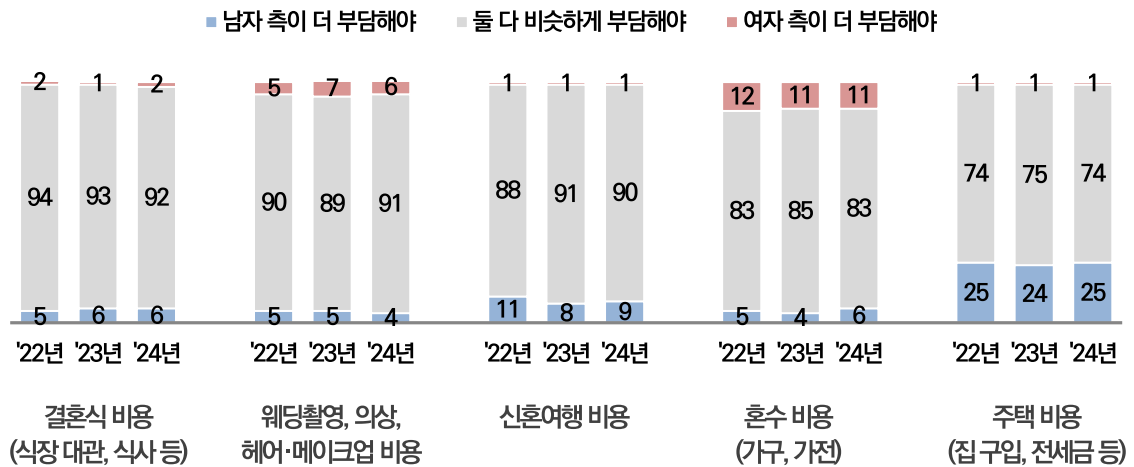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3년 연속 '남녀 비슷하게 부담해야' 인식 높아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은 남녀가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3년 연속 우세하다. 결혼식 비용(92%), 웨딩촬영·의상·헤어·메이크업 비용(91%), 신혼여행 비용(90%)은 90% 이상이 남녀가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혼수(83%)와 주택(74%) 비용도 남녀가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다만, 3년 연속 4명 중 1명은 주택 비용에 있어 남자 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라는 옛말과 같이, 3년 연속 25%의 사람들은 '집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어진다. '혼수는 여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3년 연속 10% 안팎이다.

특히 60대 이상 응답자 중 30% 정도는 남자 측에서 주택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18-29세 여성(34%, 남성 9%)과 60대 남성(39%, 여성 28%) 역시 동세대 성별 대비 남자 측에서 주택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3년 연속 '남녀 비슷하게 부담해야' 인식 높아

(단위 : %)



질문: 결혼 과정에서 다음 각각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5점 척도로 질문함(①+② 남자 측이 더 부담, ③ 둘 다 비슷하게 부담, ④+⑤ 여자 측이 더 부담).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3.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60대 이상, 3명 중 1명은 ‘남자 측’에서 ‘주택 비용 더 부담해야’
18-29세 여성과 60대 남성, 동세대 성별 대비 남자 측이 주택 비용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

(단위 : %)

주택 비용(집 구입, 전세금 등) 부담		사례수 (명)	남자 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	둘 다 비슷하게 부담해야 한다	여자 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
전체		(1,000)	25	74	1
성별					
	남자	(496)	23	75	2
	여자	(504)	27	73	1
연령					
	18-29세	(161)	21	76	3
	30대	(149)	14	83	3
	40대	(179)	25	74	1
	50대	(195)	23	77	0
	60대	(173)	34	66	1
	70세 이상	(143)	32	67	1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4)	9	87	4
	여자_18-29세	(77)	34	65	1
	남자_30대	(77)	14	81	6
	여자_30대	(72)	14	86	0
	남자_40대	(91)	25	74	1
	여자_40대	(88)	24	75	1
	남자_50대	(98)	22	78	0
	여자_50대	(97)	24	75	1
	남자_60대	(85)	39	60	1
	여자_60대	(88)	28	72	0
	남자_70세 이상	(61)	30	70	0
	여자_70세 이상	(82)	34	64	1

질문: 결혼 과정에서 다음 각각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5점 척도(①+② 남자 측이 더 부담, ③ 둘 다 비슷하게 부담, ④+⑤ 여자 측이 더 부담), 주택 비용(집 구입, 전세금 등) 부담에 대한 결과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3.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결혼과 이혼 행태, 결혼 방식에 대한 인식

이혼과 재혼은 모두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동성결혼은 안된다는 인식 '절반 이상'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전체 혼인 중 77.3%이며, 남녀 모두 재혼은 12.2%로 전년(2022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2023년 남자의 재혼은 16.3%, 여자의 재혼은 18.2%로 전년 대비 각각 1.4%-0.6%포인트 증가했다. 2023년 혼인 부부 10팀 중 1팀 가량은 양쪽 모두가 재혼인 상황에서, 90% 이상은 재혼에 호의적인 입장이다(사별 후 재혼 92%, 이혼 후 재혼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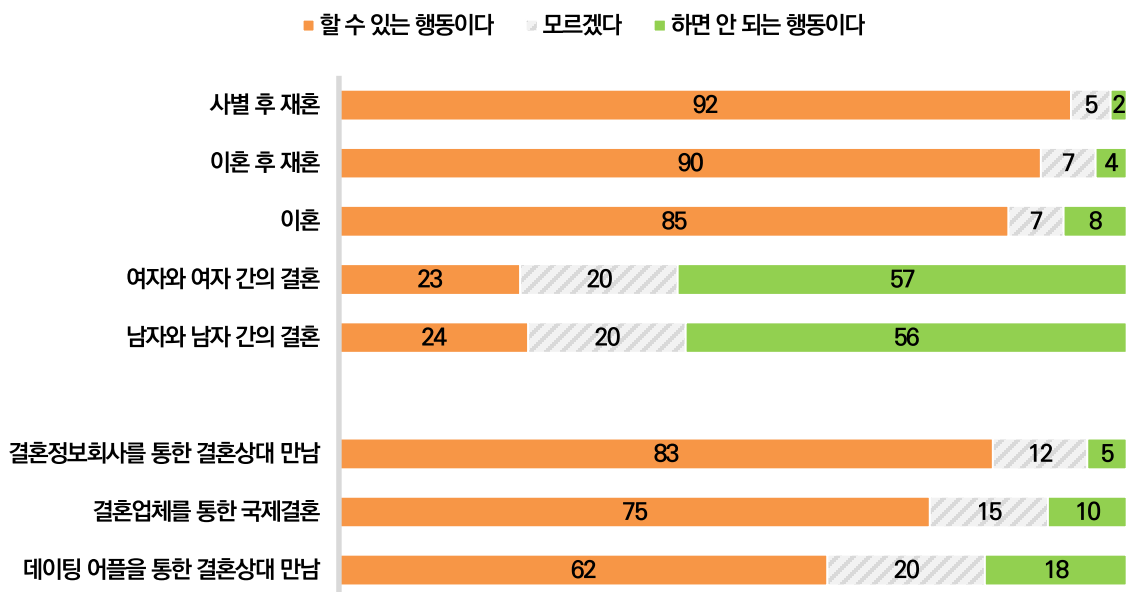
작년 이혼건수는 9만 2천 건, 조(組)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1.8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이혼 역시 85%의 대다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3년 연속 이혼·재혼에 관해 호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혼과 재혼이 흠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다만,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다.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57%), 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56%) 모두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과반이다. 4명 중 1명만이 동성 간 결혼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결혼정보회사, 결혼업체, 데이트 앱을 통해서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그 중에서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만남은 83%가 가능하다고 답해 가장 높고, 결혼업체와 데이트 앱도 각각 75%와 62%로 높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고전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업체나 앱을 통해 이뤄지는 만남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이혼·재혼 모두 할 수 있어, 다만 동성 결혼은 하면 안되는 행동 '절반 이상' 결혼정보회사, 결혼업체, 데이트 앱을 통한 결혼 상대 만남·결혼 '할 수 있어'

(단위 : %)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3. 22. ~ 25.

남성은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과 데이팅 어플 사용에 여성 대비 호의적

남녀, 모든 세대에서 이혼과 재혼 모두 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결혼정보회사나 결혼업체, 데이팅 어플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수가 호의적이다. 다만,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과 데이팅 어플 사용에 대해서는 성·연령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남성은 국제결혼과 데이팅 어플 사용에 대해 여성 대비 더 호의적인 편이다. 남성은 전 세대에서 국제결혼에 대해 여성보다 긍정적이고, 데이팅 어플에 관해서는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호의적이다. 상대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상대를 만날 수 있는 여러 채널에 대해 더 호의적인 편이다. 성별, 나이, 직업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만남 상대를 매칭하는 데이팅 어플에 대해 18-29세(66%)·30대(73%)는 다른 세대보다 긍정적인 편이다(60대 60%, 70세 이상 61%).

남성,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과 데이팅 어플 사용에 여성 대비 호의적

(단위 : %)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응답		사례수 (명)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이혼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상대 만남	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데이팅 어플을 통한 결혼상대 만남
전체		(1,000)	92	90	85	83	75	62
성별	남자	(496)	92	91	80	82	82	69
	여자	(504)	93	89	90	85	69	56
연령	18-29세	(161)	88	86	87	80	62	66
	30대	(149)	92	90	87	83	73	73
	40대	(179)	94	95	88	88	80	60
	50대	(195)	93	90	88	83	81	56
	60대	(173)	94	90	85	83	76	60
	70세 이상	(143)	94	88	75	84	76	61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4)	88	86	82	74	71	62
	여자_18-29세	(77)	88	86	92	86	52	70
	남자_30대	(77)	88	88	80	81	80	79
	여자_30대	(72)	96	93	94	86	65	66
	남자_40대	(91)	92	95	80	85	82	65
	여자_40대	(88)	96	94	96	91	78	56
	남자_50대	(98)	95	92	85	83	89	70
	여자_50대	(97)	92	88	92	83	73	43
	남자_60대	(85)	95	94	81	83	83	71
	여자_60대	(88)	92	85	88	82	69	49
	남자_70세 이상	(61)	97	93	72	88	83	67
	여자_70세 이상	(82)	91	85	77	80	71	56
혼인여부								
	미혼	(314)	89	87	86	79	66	66
	배우자 있음	(560)	94	91	84	86	80	61
	사별, 이혼	(126)	94	92	89	81	76	60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3.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동성결혼은 '하면 안 되는 행동', 절반 이상 18-29세 여성, 10명 중 7명이 동성결혼에 호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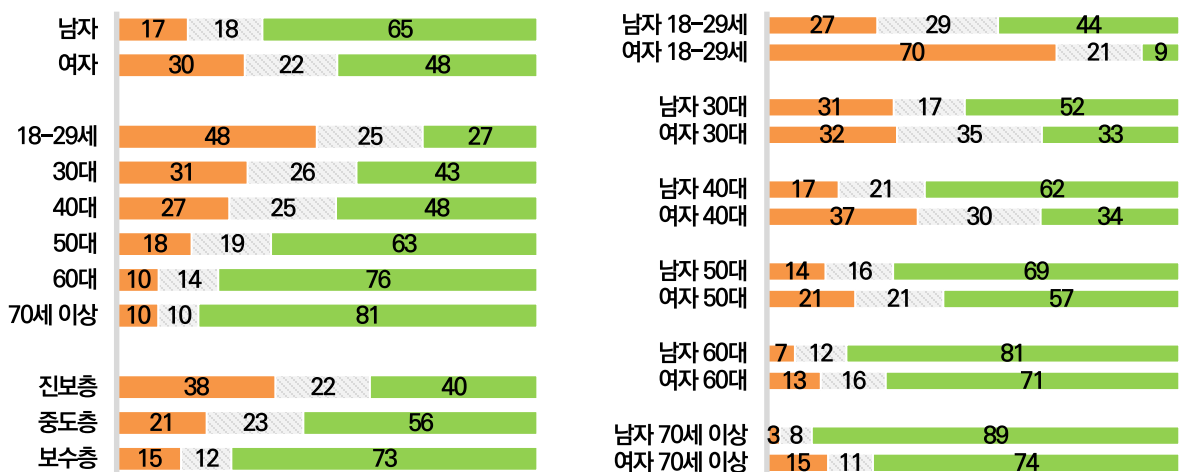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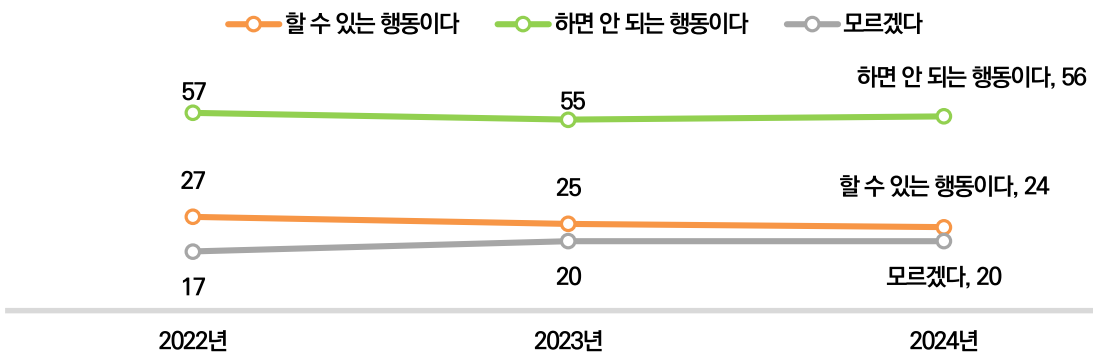
동성결혼(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각각 56%(남남결혼 하면 안 된다), 57%(여여결혼 하면 안 된다)로 과반을 차지한다. 이는 할 수 있다는 인식보다 두 배 이상 높다(남남결혼 할 수 있다 24%, 여여결혼 할 수 있다 23%).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동성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과반을 차지한다.

응답자 4명 중 1명만이 동성결혼에 호의적인 가운데, 18-29세 여성의 70%는 각각 남남결혼과 여여결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든 세대에서 여성의 허용 인식이 남성보다 높은 가운데, 18-29세에서 그 차이가 가장 극명하다(남성 18-29세 27%, 여성 18-29세 70%). 본인을 진보성향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중도나 보수성향인 사람보다 동성결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 '하면 안 된다' 56%, '할 수 있다' 24% 18-29세 여성, 남남결혼 '할 수 있다' 70%

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

(단위 : %)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남자와 남자 간의 결혼

비고: 이념성향은 11점 척도(0~4점 진보, 5점 중도, 6~10점 보수), 이념성향 '모름' 응답 제외, 세부 특성별 결과는 24년 3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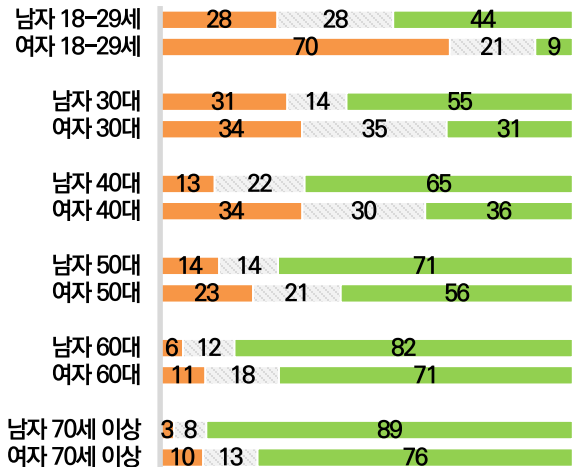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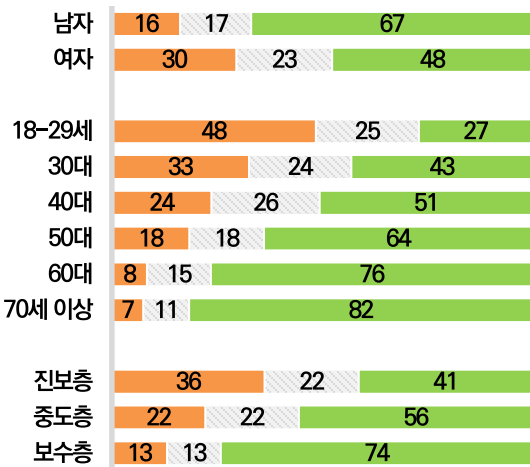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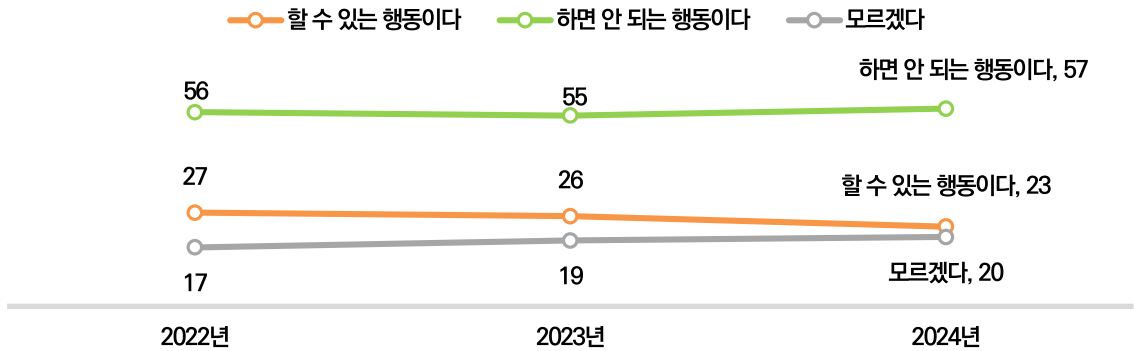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5. 20. ~ 23. // 2023. 5. 26. ~ 30. // 2024. 3. 22. ~ 25.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 '하면 안 된다' 57%, '할 수 있다' 23%
18~29세 여성, 여여결혼 '할 수 있다' 70%

(단위 : %)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여자와 여자 간의 결혼

비고: 이념성향은 11점 척도(0~4점 진보, 5점 중도, 6~10점 보수), 이념성향 '모름' 응답 제외, 세부 특성별 결과는 24년 3월 조사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5. 20. ~ 23. // 2023. 5. 26. ~ 30. // 2024. 3.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생각

결혼을 전제한다면 동거해도 괜찮다, 54%로 작년 대비 6%포인트 증가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동거를 할 수 있다 30%, 6%포인트 감소

‘결혼을 전제했다면 동거를 해도 괜찮다’는 인식은 작년 대비 6%포인트 증가한 54%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결혼을 전제하면 동거할 수 있다’는 인식이 4년 연속 다수 의견이다. ‘결혼 전제와 상관없이 동거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은 6%포인트 감소한 30%이다. 작년에는 ‘결혼 전제와 상관없이 동거할 수 있다’는 인식이 22년 대비 증가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소폭 감소했다(22년 30%→23년 36%→24년 30%). ‘결혼을 전제했어도 동거할 수 없다’는 인식은 16%로 비교적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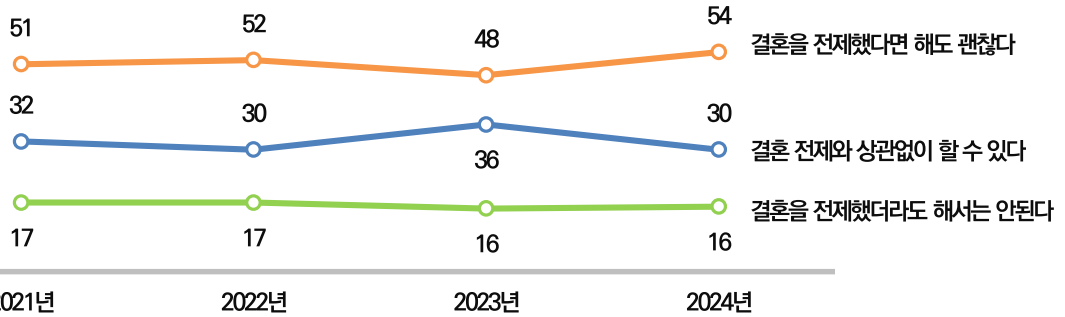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결혼을 전제하면 동거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절반에 가깝거나, 절반을 넘는다. 18-29세의 52%는 ‘결혼과 상관없이 동거할 수 있다’고 답해, 동거에 가장 호의적인 세대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결혼과 상관없이 동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진다. 70세 이상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36%)은 동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8-29세는 세대 중 동거에 가장 호의적인데,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8-29세 남성은 결혼을 전제한 경우 가능하다는 인식이 52%로 과반을 차지하나, 동세대의 여성은 오히려 결혼 전제와 상관없이 동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61%로 다수이다.

결혼을 전제한다면 동거해도 괜찮다, 54%로 작년 대비 6%포인트 증가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동거를 할 수 있다 30%, 6%포인트 감소

(단위 : %)

동거에 대한 인식



		사례수 (명)	결혼을 전제했더라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결혼을 전제한다면 해도 괜찮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전체		(1,000)	16	54	30
성별	남자	(496)	14	58	28
	여자	(504)	18	51	31
연령	18-29세	(161)	4	44	52
	30대	(149)	7	54	39
	40대	(179)	12	48	40
	50대	(195)	14	56	30
	60대	(173)	24	69	7
	70세 이상	(143)	36	55	9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4)	4	52	44
	여자_18-29세	(77)	5	34	61
	남자_30대	(77)	7	56	37
	여자_30대	(72)	7	52	41
	남자_40대	(91)	9	52	38
	여자_40대	(88)	14	44	42
	남자_50대	(98)	12	58	30
	여자_50대	(97)	15	54	30
	남자_60대	(85)	22	72	6
	여자_60대	(88)	26	66	7
	남자_70세 이상	(61)	33	59	9
	여자_70세 이상	(82)	39	51	10
혼인여부	미혼	(314)	7	47	46
	배우자 있음	(560)	20	59	21
	사별, 이혼	(126)	19	53	28

질문: 결혼 전에 한 집에서 거주하는 동거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1. 5. 21. ~ 24. // 2022. 5. 20. ~ 23. // 2023. 5. 26. ~ 30. // 2024. 3.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2월 기준 전국 91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10,395명, 조사참여 1,49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9.6%, 참여대비 66.7%)
조사일시	• 2024년 3월 22일 ~ 3월 25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